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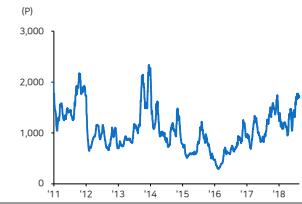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711.9	15.8	111500.0	-0.9	15.1	-12.9	16.2	3.0	-28.9	0.6	0.6	-0.1	22
현대중공업주	6,270.3	20.6	385000.0	-0.3	14.1	-9.1	1.1	4.4	7.9	0.8	0.7	10.0	10.5
현대알렉트릭	658.3	4.9	64500.0	-0.6	12.2	-28.7	-43.4	282	48.7	0.6	0.6	3.5	6.3
현대건설/기계	1,274.0	9.1	129000.0	1.2	13.7	-27.5	-23.7	16.9	102	1.1	1.0	12.3	12.0
삼성중공업	4,428.9	17.5	7030.0	0.6	13.4	-11.6	8.7	-9.2	-15.4	0.5	0.6	-1.8	0.6
대우조선해양	3,055.4	7.3	28500.0	0.2	22.3	4.4	105.0	3.8	8.3	0.9	0.7	7.9	6.5
현대미포조선	1,822.0	10.2	91100.0	-1.6	12.8	-9.4	15.8	4.2	142	0.8	0.8	4.7	5.1
한진중공업	271.5	6.7	2560.0	1.6	-7.1	-26.2	-22.7	-1.0	-58.6	0.5	0.5	-25.4	-23.5
현대엘리베이터	2,824.5	20.7	104000.0	0.5	34.9	-28	91.2	27.4	53.1	3.1	2.5	3.7	4.1
두산밥캣	3,488.7	25.7	34800.0	0.6	15.0	5.5	-2.8	12.7	123	1.0	1.0	8.3	8.4
현대로템	2,681.8	2.5	31550.0	0.3	31.7	-12.6	68.3	-56.6	129.2	2.0	2.0	3.6	5.7
하이록코리아	330.1	48.9	24250.0	4.1	1.9	-21.7	7.8	14.0	20.1	1.0	1.0	5.6	6.8
성광밴드	326.0	15.9	11400.0	1.8	10.7	-17.1	14.2	-20.0	-155.3	0.7	0.7	0.9	2.3
태광	339.2	12.9	12800.0	-1.2	23.7	-4.5	6.2	-20.9	39.1	0.8	0.8	25	32
두산중공업	1,739.6	14.5	14850.0	-0.7	6.8	-25.4	-3.3	-6.1	24.0	0.5	0.5	5.2	6.4
두산인프라코어	2,091.9	19.1	10050.0	-0.5	9.2	-9.9	15.7	14.0	6.4	1.3	1.0	13.1	12.6
두산엔진	123.6	4.0	3750.0	5.5	3.9	-43.3	7.6	-25.2	-17.2	0.5	0.3	-2.0	1.4
한국항공우주산업	3,923.4	14.1	40250.0	0.3	23.9	-9.6	-15.2	-16.7	33.2	3.4	3.4	11.9	13.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51.6	11.2	24050.0	1.7	2.8	-15.6	-32.4	-26.3	36.8	0.6	0.6	2.7	4.2
LIG넥스원	693.0	9.1	31500.0	1.0	-9.7	-23.5	-47.3	-80.3	21.0	1.2	1.1	8.2	12.9
태웅	306.1	4.8	15300.0	0.0	8.9	-26.1	-20.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94.3	4.5	7200.0	1.0	25.2	3.0	42.6	-6.3	153.4	22	24	4.5	13.7
한국카본	266.0	13.0	6050.0	-0.8	7.1	-7.2	12.9	357.4	266.0	0.8	0.8	3.0	5.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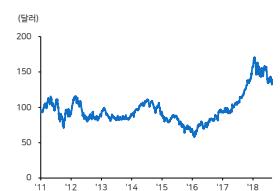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9 173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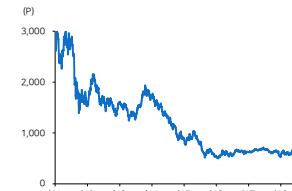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 Stock) : +1.32 139.99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DSME takes 2018 LNG carrier orders to a dozen**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LNG선 2척을 추가 수주하며, 올해 LNG선 12척을 수주함. 올해 7월까지 수주실적은 35억달러(27척)로 알려짐. 수주잔고 기준 LNG선은 41척이며, 규모는 총 124.3억달러로 알려짐. 대우조선해양은 환경규제에 맞춰 지속적으로 선거를 인상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韓 36척 vs 中 2척...LNG선 시장 휩쓰는 한국 조선

올해 국내 조선 3사는 LNG선 36척을 수주한 반면, 중국 조선사는 최근 수주한 2척에 불과함. 또 중국 Jiangnan 조선소가 수주한 LNG선은 8만CBM급으로 중형급이며, 자국 선사인 Jovo 그룹에서 발주한 선박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LNG선은 18만CBM급이며, 선가는 1.8억달러를 상회함. (EBN)

세계 해운시장 '유럽 빅3' 압승 깨졌다

글로벌 4위 컨테이너선사 Cosco가 OOCL 인수를 마무리 지으며, 3위로 올라섬.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Cosco의 선복량은 281만TEU로 CMA CGM(264만TEU)을 제침. 중국 선사 Cosco의 홍콩선사 OOCL 인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승인이 지연되었으나, 지난달에 마침내 승인을 받고 인수에 성공함. (EBN)

Shell gives AET reason to order new shuttle tanker

싱가폴 선사 AET는 오일메이저 Shell 계열사 Brazil Shipping과 용선 계약을 맺고, 15.3만DWT급 셔틀탱커 1척을 임명의 국내 조선사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인도는 2020년 4분기로 예정됨. 지난 5월 AET는 삼성중공업에 15.2만DWT급 셔틀탱커 4척을 2020년 인도 예정으로 발주한 바 있음. (TradeWinds)

2020년 스크러버 장착선 2500척에 달할 듯

올해 초 기준 스크러버를 장착했거나 장착 계획인 선박은 346척이었으나, 7월 초 기준 873척으로 늘었다고 알려짐. 최근 스크러버 장착이 급증하면서, 스크러버 장착 선박은 1,500척에 가까워짐. 2020년에는 2,500척에 이르며, 글로벌 선대 약 3%가 장착해 전체 연료 소모량의 8%를 차지할 전망임. (선박뉴스)

Maersk secures big chunk of 2020 fuel supply

글로벌 1위 컨테이너선사 Maersk는 독일 터미널 업체 Royal Vopak과 함께 로테르담에서 저유황유 병킹링 시설을 준비 중임. Royal Vopak은 Maersk 원유 수요의 20%를 공급할 계획임. 해당 시설은 연 23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제 3의 선사에도 저유황유를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8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8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8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